

예산안·탄핵안 놓고 연말 정국 여야 '극한 대치'

민주 '감액 예산안' 관철 위해 '지역 화폐'도 포기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 탄핵소추안 통과되더라도 현재 인용 가능성 없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역점 사업과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지목한 예산 등도 대폭 감액됐다.

당초 민주당이 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액 예산안 관철을 위해 '독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로 현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감행했다며 강공으로 맞설 태세다.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만큼 향후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로 한 야당의 각종 협상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2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예산안을 상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양당의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지역 예산 압박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 측도 감액 예산안 상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처리 방침을 설명하며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능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기상자산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은 없이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현

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문제를 놓고도 강대강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최재현 감사원장과 이장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4명을 더하면 민주당이 2대 국회 들어 발의한 고위공무원 탄핵안 대상자는 11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8개월간 진행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장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을 것을 문제로 삼았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원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정기관을 겨냥한 탄핵안 카드를 잇따라 꺼내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정기관에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여론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광주회생법원 2026년 3월 신설된다

민형배 발의 '법원설치법' 본회의 통과 '도산사건' 사법 서비스 신속하게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첫 정책 의원 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 처리 지원 방침을 세우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계속된 경기 침체로 2023년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도산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광주를 포함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는 물론, 대전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민형배 의원은 "법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시민들이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권자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진수 기자

문금주,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1일 "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외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가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금주 의원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독심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尹, 임기 후반기 내각·참모진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고심 중이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내각 교체 대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재임한 '장수 장관'들이 거론된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무부총장, 5선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국회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

은행 총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진수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누구나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